

중국 조선족 촌락의 공간구조 변화 분석

- 용정시 장재촌을 대상으로 -

김인학* · 장태현**

* 청주대학교 조경학과 · **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Spatial Structures in the Korean Villages of China

- The Case of Jang-je Village in Yongjoun City -

Jin, Ren He* · Chang, Tai Hyun**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hongju University

** Dept. of Environment Landscape Architecture, Chongj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dequately cope with the improvement plan of the Korean Villages in Yong-Joun City. The factors were drawn through identification of the entire village space and spatial structural factor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The entire space of the village was based on natural formation in its initial formation stage. The traditional location conditions and environment were equipped with the possibility and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village. Spatial boundaries were mostly divided by natural topography. The quantify of lots diminished in spatial structural factors, while the division of roads by hierarchy in terms of size became explicit. Alleys, as the minimum hierarchial unit, were degraded. The residence unit was focused on economic efficiency. Communal use facilities showed an external relations trend as central facilities. The land, unit residence and communal facilities approached the high hierarchial roads. The communal facilities showed relatively higher independence compared to the residence units. The spatial structural changes followed traditional life style in the initial stage of village formation; however, social elements mainly impacted on the changes. Since

reform opening, economic elements were major causes of changes, while construction conditions, life style, and awareness of structures impacted upon the changes. Thus, the economic element is the major change element in the Korean Villages, even though other elements will also become diverse.

Key Words : Korean Village, Yanbian Region, Spatial Structures, Causes for Change.

I. 서론

주거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키고, 자연에 적응한 결과로 나타나는 촌락은 지역성을 잘 반영하며 한 곳에 오래 정주하게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토지의 점거(占據)이용이 확장되어 제2차적인 각종 인문현상이 나타나게 된다(홍경희, 1985). 또한 정주공간의 기본구조는 지속성이 크므로 자생적으로 변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시에 전통적인 질서도 많은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거주자들을 둘러싼 사회·경제 및 기타 요인들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변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Rapoport, 1969).

원래 한반도에서 생활하다 근대의 역사,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근거지를 떠나 다른 문화권에서 거주하며 형성된 촌락에서 이러한 촌락의 변화 특징을 더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 전통적인 집결지역과 전통적 생산수단의 존재로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잘 계승하여 온, 해외동포의 약 40%가 거주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¹⁾의 촌락구조에서 그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월경(越境)이주하여 중국에 형성한 조선족 촌락은 집결한 지역에서 한민족의 전통주거문화를 유지하는 반면, 형성발전과정에서 모태환경과는 다른 자연, 인문환경과 타민족 생활권의 영향으로 정주공간의 기본구조는 가변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현재 중국에서 개혁개방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조선족 촌락의 고유정체성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조선족이 타민족 문화권에서 형성한 촌락의 위치, 기능, 규모, 기원 등을 연구함으로써 다른 형식으로 존재

하는 한민족의 전통촌락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조선족 전통주거공간의 질서를 밝혀 민족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앞으로의 변화 대비는 매우 절실한 사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연변지구 조선족촌락을 대상으로 형성초기로부터 현시점까지 촌락 공간구조의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민족의 전통촌락형식이 다른 자연, 인문환경과 접촉하는 과정에서의 변화요인과 그 방향성을 예측하고 향후 예상되는 조선족 촌락의 변화 개선계획에 대응할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II. 이론적 고찰

1. 촌락의 공간구조

촌락을 공간구조적 관점으로 파악하는 접근방법에서의 공간구조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 그리고 부분들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촌락공간에 대비시키면 촌락전체공간과 공간요소 그리고 공간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있는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한필원, 1991).

여기서 전체공간은 전통 농업사회에서 하나의 자기완결적 소유주로서 거주자들이 촌락공간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의 총체로 볼 수 있다. 우선 공간의 형성 과정에 따라 자연발생적 촌락과 계획적 설정촌락으로 그 성격이 분류된다(홍경희, 1985). 또한 촌락영역이 주민의 공간지각에서 생활공간으로 하나의 안정된 정착지로 인식되려면 그 규모는 상상 가능한 범위에 머물고 공간적으로 비호성(庇護性)을 가져야 하는데 즉 뚜

렸한 한계 또는 경계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촌락의 내부영역을 외부에 대하여 형태상으로 구분하여 한정하는 것을 국면을 이룬다고 말하는데(김덕현, 1991) 이는 곧 공간과 장소의 절충개념으로서 한 장소를 공간적 접근편의로 파악하는 입지로서의 해석이 필요하다(김형국, 1997).

오홍석(1989)은 촌락을 구성하는 공간요소는 실질적인 농민생활이 가옥이 집합된 촌락내 뿐만 아니라 의식주의 자원생산을 위한 농경지와 인간·물자의 소통을 위한 교통로와의 유기적인 결합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옥을 주축으로 그 주변에 배치되는 부속건물, 도로, 수로, 경지, 공한지(空閑地), 울타리, 방풍림(防風林) 등 촌락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경지, 삼림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과 그들 사이의 연계, 결합관계는 지방 고유의 촌락이 형성되며, 그 지방의 촌락경관을 특색 지우고 지역적 성격을 반영한다.

이상과 같이 촌락의 공간구조의 연구에서 전체공간의 형성성격, 입지, 공간경계, 공간요소로서의 대지, 길, 단위주거 공동시설, 경작지, 주변 자연환경 및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 등으로 그 변화과정의 파악에 부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변화요인의 추출

촌락의 공간구조는 형태와 크기, 자연관, 사회·경제적 구조와 유교적 의식구조 등의 영향으로, 그 형태와 공간적 질서가 형성되며(고석철과 장병관, 2001), 그 변화도 단순한 공간 자체만의 변화가 아니라 촌락과 기능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촌락지역의 사회·경제적 여러 현상과 밀접한 연관속에서의 구조적 변화이다.

이런 변화현상을 홍동식(1988)은 유형별로 나누어 그 요인을 구분하였는데, 농촌가족의 변화요인으로는 인구와 기술, 도시의 독점자본과 연계된 상농업의 전개와 농업의 열등한 지위로, 농촌인구의 이동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우월한 유인요소로 보았다. 또한 농촌 주민의 가치관의 변화는 농촌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농촌 사회계층 변화에 관련된 요인 들로는 토지소유관계의 변화, 비농업부문의 취업기회, 도시화 등으로, 농촌조직의 변화요인은 환경, 기술, 인

구 및 국가 정책적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윤원근(1999)은 촌락의 공간현상과 사회·경제적 변화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여 영농형태, 생산방식, 농가유형 등 농업, 경제적 측면과 영농조직, 사회집단, 사회관계 등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촌락공간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공간외적인 요인들은 다양하고 복잡적이지만 변화과정에 따라 주로 인문환경요인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주 원인으로 이에 따른 의식구조, 생활양식, 건축조건 등으로 종합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요인으로서의 기후, 풍토 여건 등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3. 조선족 전통촌락의 구성특징

조선족 촌락의 분류에서 이민시기와 이민과정에 따라 주로 19세기말부터 1931년 사이에 자주적으로 형성된 개별 이주촌과 1930년대 후반의 일본에 의한 한반도로부터 집단이동에 의해 형성된 집단 이주촌으로 볼 수 있다(朴靑山과 金哲洙, 2000). 형태에서는 전통적 수전 농업에서의 협력 및 생활방식의 자급자족으로 주로 집촌을 이루었으며 “봉금(封禁)²⁾” 정책의 실시, 폐지와 더불어 그동안 산에서의 화전(火田)으로의 피신생활에서 물이 풍부한 평원지대로의 과정 경과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포에서는 대개 한반도에서의 같은 촌락이나 지방 출신들로 현재의 거주 집단을 이루고 있어서 생활 풍습에 있어서 한반도 각 지방의 전통을 전수하고 있다 하겠다(한국문화인류학회, 1988). 혈연관계에서 조선족 촌락은 한반도의 전통적인 촌락공동체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집단이주자를 제외한 단독 가족 이주자들은 처음부터 친족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상태로 있어 동족 또는 동성(同姓)촌락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낸다(한상복과 권태환, 1994).

III. 연구방법

1. 대상지의 선정

본 연구에서의 대상 촌락의 선정 기준은 조선족의

인구분포, 이주경로, 이주시기에 근거하여 동일한 이주 노선에 위치, 형성시기가 일찍 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거주자들이 대부분이 조선족으로 구성, 일정한 규모와 전통성을 유지, 변화가 어느 정도 시작, 기초자료 수집이 용이한 곳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沈惠淑(1992)이 정리한 5갈래의 주요한 이주노선 중, 이주 초기 조선족이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집결한 회령-삼합-지신-용정 지역에 이르는 노선상에 분포된 촌락에서 제일 적합한 장재촌을 변화추적의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 연구의 과정과 방법

촌락과 그의 공간구조에 관한 기초적 이론접근이 가능하도록 문헌조사를 통해 개념 및 구성요소를 검토, 재정립하였다. 연구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는 1, 2차로 나누어 2002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문헌자료에서 얻어진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대상지 촌락의 변화상태를 추적하여, 촌락의 전체공간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였다. 촌락의 형성, 발전과정을 특정된 연대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지형도와 실측도를 확보하여, 실제답사를 통한 단계별 공간구성요소의 변화 및 공간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변화를 분석하고 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강하였다. 아울러 단계별 변화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변화 요인을 추출하였다. 얻어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3. 변화단계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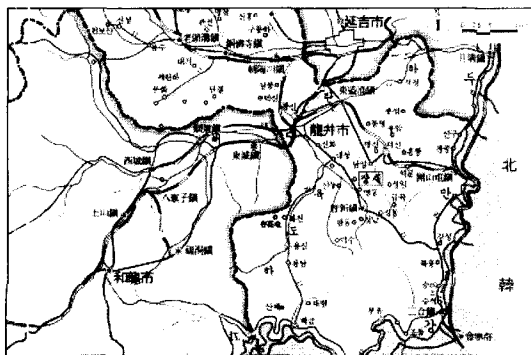


그림 1. 용정시 행정구역도

촌락의 형성발전과정에 따른 공간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위하여 연변지구의 이민 관련 역사와 중국 역사 연대표에 근거하여 변화단계를 크게 해방 전, 해방 후로부터 개혁개방³⁾ 전, 개혁개방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등 세 단계로 분류하고 본문에서는 이를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로 정하였다. 여기서 제1단계는 청나라통치, 일제의 식민지화 등 반봉건, 반식민지시기의 자급자족 자연경제를 토대로 하였고(北京大學 朝鮮文化研究所, 2000), 제2단계는 신중국 성립이후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에 기초하여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경제력의 평준화와 신분상의 평등에 주안점이 두어진 시대로 초급농업협작화운동⁴⁾, 대약진운동⁵⁾, 문화대혁명⁶⁾ 등이 진행되었다(金奎方 등, 1990). 제3단계에서 개혁개방과 더불어 시작된 농촌에서의 개혁이 도시로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립, 소유구조에서 비공유제경제 비중과 경제산업구조에서 비농업생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경제력과 생활수준의 제고 및 시장경제로의 의식구조 전환 등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延邊五十年 編委會, 1999). 조선족 촌락이 겪은 이러한 특정적 단계에서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그 공간구조에도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추정되어 세 단계별로 분석하여 보는 것은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일부 공간요소들에 대한 변화추적은 더 세부적인 연대와 관련이 있으므로 세 단계를 구체적으로 7과정으로 세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IV. 공간구조의 변화 및 요인

1. 장재촌의 현황

장재촌은 행정구역상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지신진의 한개 촌락으로서 연변 남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지신진(智新鎮)과 삼합진(三合鎮)사이의 산지에서 발원하여 장재촌을 경유하여 용정시의 시가지 서쪽에서 해란하(海蘭河)와 합류하는 육도하(六道河)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지리적 여건에 따른 인구분포 특성에 의해 한족(漢族)의 유입이 거의 불가능하여 개척 이래 지금까지 전체 주민이 조선족으로 구성되었다. 19세기말 이주초기부터 한반도로부터의 이주민들

표 1. 변화단계설정 연대표

단계	특정연대	과정	년 도	비 고
1	해방전	1	19세기말~1910	이민 시작~청조(淸朝) 몰락
		2	1911~1930	신해(辛亥)혁명 시작~'9.18'사변
		3	1931~1948	'9.18'사변~중화인민공화국 성립
2	해방후~개혁개방전	4	1949~1965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문화대혁명 전
		5	1966~1977	문화대혁명~개혁개방 전
3	개혁개방후	6	1978~1991	개혁개방 시작~한중수교 전
		7	1992~현재	한중수교~현재

이 개척, 정착하면서 점차 순수한 조선족 촌락으로 이루어져 2001년말 촌락의 호수는 100호, 인구수는 323명⁷⁾으로 변모해왔다.

2. 공간구조의 변화

1) 전체공간 분석

(1) 형성성격

장재촌은 이민초기 1890~1910년 기간에 공간형성에 서의 첫 번째 절정기를 이루어 촌락공간이 대체적으로 형성되었고 1968~1970년 기간에 두 번째 절정기를 이루게 된다. 두 차례의 절정기 가운데서 전자는 자연발생적으로 촌락을 형성하는 초기단계이고, 후자는 국가 정책 하에 유도된 집단적 이주로 인한 계획적 설정의 공간형성이다. 또한 절정시기에서 형성된 이외의 기타 공간은 소규모로 이주한 자연적 인구의 증가에 따른 분가(分家)로 형성된 것으로서 자연발생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두 번째 절정기를 제외한 자연발생적인 공간은 전체의 79%에 이르며 촌락형성의 근간을 이루어 놓았으므로 장재촌의 공간형성 성격은 자연발생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그림 3 참조).

(2) 입지

장재촌의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에는 육도하가 흐르며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다. 촌락이 자리 잡은 전체적인 지형적 조건으로 볼 때 풍수적 배산임수의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장태현, 2001). 이는 장재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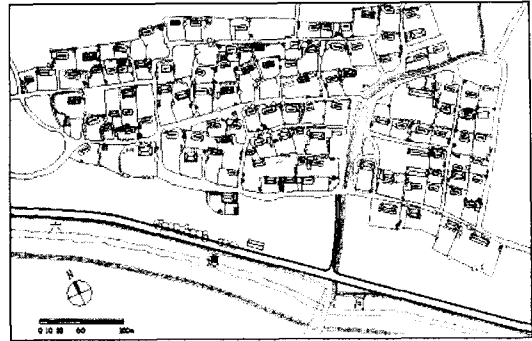


그림 2. 장재촌 현황평면도

- 범례: 전통기와집: 현대식기와집: 초가집:
- 비포장도로: 無거주주택: 부속채:
- 포장도로: 수목:

資料: 임충신 등(1994), p.117. 상술한 자료에서 1993년에 실측한 1:1000의 도면을 기준으로 본 연구자가 2002년까지의 변화된 부분을 실측, 보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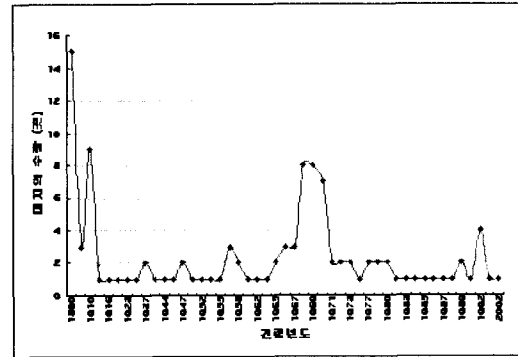


그림 3. 촌락공간의 형성년대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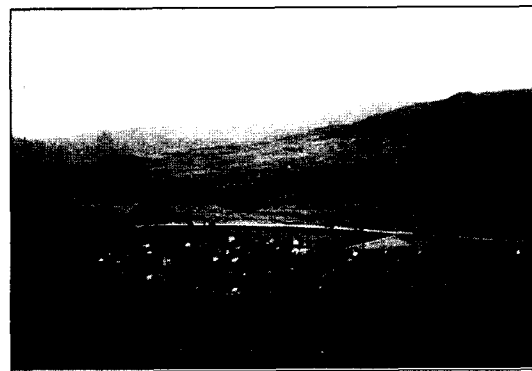


그림 4. 장재촌의 전경

공간구성이 자체의 변화, 발전과정에서 음양풍수설과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형성초기의 선지(選址), 형태, 생활풍속 등의 면에서 이주 전 선조들의 전통민속을 그대로 계승하고 이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척 초기에 이곳은 자연림으로 덮혀 있었고 살 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온 극빈한 조선 농민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연료로 사용하였으며 숲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생산력이 극히 낙후한 환경에서 이러한 장재촌의 지리조건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전통적인 생활풍속과 농업생산을 해나감에 있어서 적합한 장소였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재촌의 입지적 여건과 환경은 이민 초기 촌락의 형성과 발전에 기본적인 조건과 가능성을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치한 5개의 산으로 구성된 자연적 요소와 인접한 2개소의 생활장소가 있다. 장재촌은 정착역사가 100여년밖에 안되었기에 주변에 역사가 오래된 문화재나 다수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에 시각적 가시거리가 멀고, 생산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밭, 연료림으로 이용되는 주변의 산 및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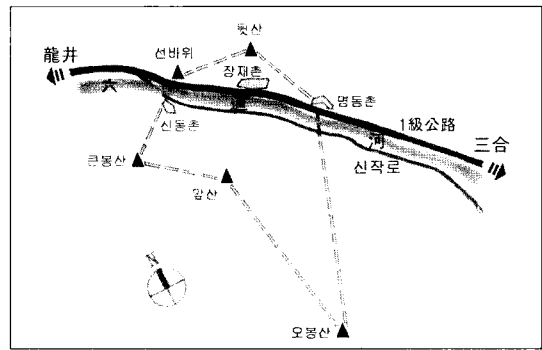


그림 5. 장재촌의 공간경계

3) 공간경계

인터뷰를 통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공간경계를 형성하는 상징적 요소를 분류해 보면, 촌락 주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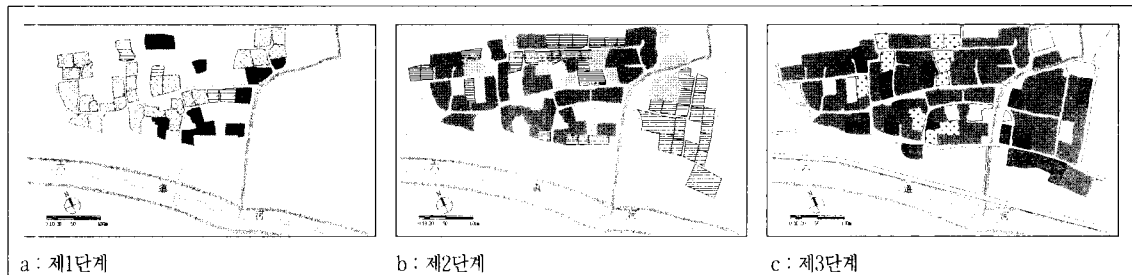


그림 6. 대지의 형성과정

범례: □ : 제1과정 ; □ : 제2과정 ; ■ : 제3과정 ; □ : 제4과정 ; □ : 제5과정 ; □ : 제6과정 ; □ : 제7과정 ; ■ : 선단계 형성 ; □ : 대지 소실 ; □ : 대지 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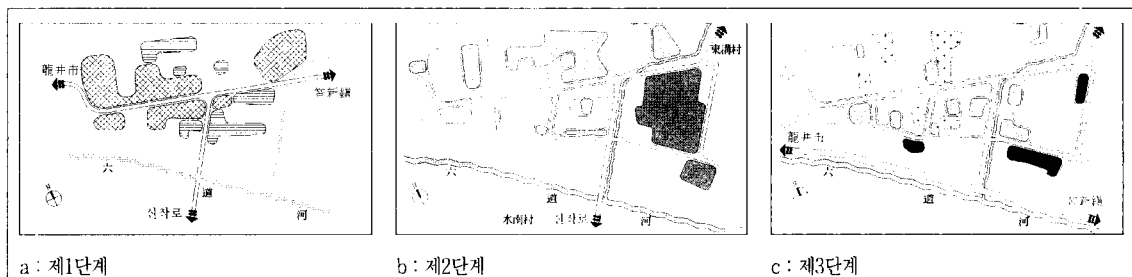


그림 7. 대지의 발전유형

범례: □ : 길 입구에 형성 ; □ : 중심부에 형성 ; □ : 기존대지들 사이에 형성 ; □ : 새로운 주거지 형성 ; □ : 기존 주거지의 외곽에 형성 ; □ : 소실된 대지 ; □ : 소실된 대지

회교제가 이루어지는 인접한 촌락의 입구 등 불변적이고 주거행위를 포함한 자연적 상징요소들이 연결되어 구성된 폐쇄적 영역으로서 일부 사회문화적 요소의 작용도 겸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성발전과정에서의 자연환경에 대한 높은 의존과 촌락 간 농업생산에서의 협력도 한 원인이라고 판정된다.

2) 공간요소들의 변화 분석

상술한 단계별 사회적 배경과 결부하여 대지, 길 단위 주거, 공동시설과 경작지 및 주변 자연환경 등 공간요소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주된 변화 원인을 찾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그림 5~그림 11: 표 3 참조).

3) 공간요소들 사이의 관계 변화 분석

공간요소의 변화분석에서 요소들 사이의 변화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출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는데 주로 길에 의한 기타 요소들의 변화가 따랐다. 구체적으로 그 결과를 보면 표 5와 같다(그림 12~그림 15: 표 6 참조).

3. 변화요인

앞에서 공간구조의 변화를 촌락의 전체 공간, 공간요소의 변화와 공간요소들 사이의 변화과정과 그 원인을 기술하였는데 몇 가지 주요 요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자연환경요인

연변지구의 주민은 대부분 한반도의 함경북도에서 이주하여 왔으며 기후대는 인접된 함경북도와 거의 유사하고 지형적으로는 백두산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全松林, 1991). 또한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고 정착과정에서 기타 민족과의 이주노선과 상반되는 방향이기에 다른 민족문화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 타민족문화의 영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하에서 이러한 기후, 지리 등 자연환경요소가 이주전의 원 거주지와 거의 동일함은 조선족의 이주 초기 주거공간구성에서 전통적인 주거문화가 지속된 원인이 되었다. 다만 지형적인 조건에서 이곳이 곡저형(谷底形) 산지로서 풍수적 입지를 찾는데 한반도의 조건과 같지 않았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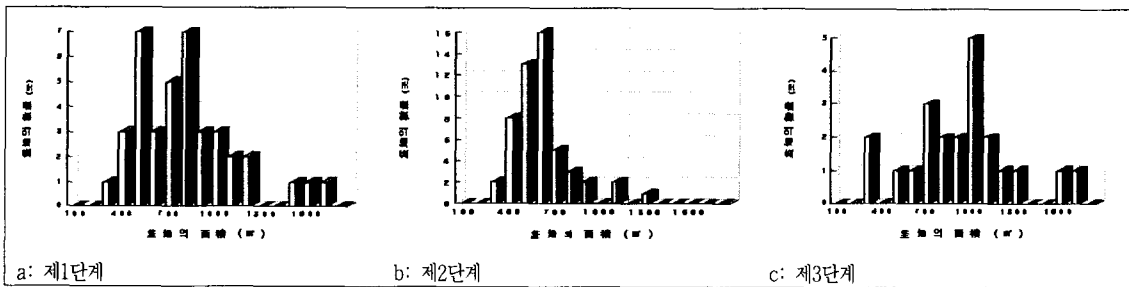


그림 8. 대지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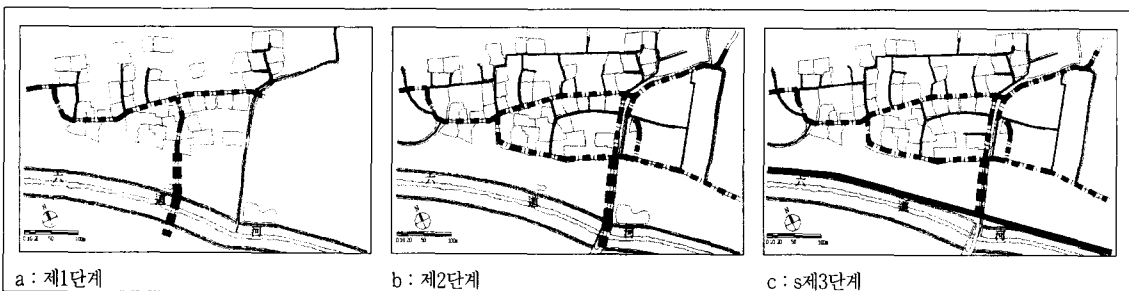


그림 9. 단계별 길의 위계

범례: : 큰길 : : 어귀길 : : 안길 : : 골목길 :

유사한 지형을 선정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장재촌의 형성초기인 제1단계에서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거의 지배적으로 되는 근원이며 발전과정에서 자연환경요소가 변화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못하였음을 보게 된다.

2) 인문환경요인

(1) 사회적 요인

장재촌의 제2단계 변화의 주 요인으로서 특정시기에 국가정책으로 인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촌락공간의 주요변화는 인구의 감소 혹은 증가에 따라 진행되는데 초기의 자연발생적인 이주로 형성된 시기와 1960년대의 집체화(集體化)에 의한 주변 촌락의 집단이주는 촌락의 공간규모 확대로 변화되었다. 1980년대 사회의 도시화 가속과 연해(沿海)지역과 내륙간의 경제발전속도 차이의 증가에 따라서 조선족 농촌인구의 대폭적인 유동은 호당 공간의 확대를 가져왔고 사용건물의 축소와 함께 대지의 분포가 밀집상태에서 분산상태로 나아 갔으며 일부 대지는 소실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제2단계에서의 전통요소들은 봉건사상이나 미신으로 취급되어 촌락공간에서의 위계질서는 유지될 수 없었고, 농업생산의 합작화로 공동시설의 위치가 주거지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소득의 평균화로 단위공간의 구성이 균등하게 되었고, 생산수단의 공유화는 마당 및 부속채의 공간형식이 변화되는 요인이 되었다.

(2) 경제적 요인

해방전 자급자족의 경제 토대에서의 공간의 형성은 신분의 서열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었고 자연에 순응하려는 전통적인 형성국면을 나타내었다. 해방 후의 토지개혁으로 토지소유 평균화의 원칙에 따라 토지가 균일하게 분배되고 계획경제에 기초하였기에 촌락의 공간은 일련의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 제3단계 시장경제체제의 실시는 경제력의 차이가 신분의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만들었으며 이에 따른 공간규모의 변화와 상대적 이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는 농기계 도입 수요 추세로 나타나 촌락내의 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원인

표 2. 공간요소

분류	내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대지	분포수량	과정	형성	절정	감소	
		원인	사회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유형	과정	도로양측 → 중심부	중심부 → 외곽	밀집 → 분산	
		원인	생활양식	사회적	경제적	
	형성방식	과정	연로(沿路)	확충(擴充)	소실	
		원인	생활양식	사회적	경제적	
	규모	과정	평균면적 약 803㎡, 불균등	평균면적 약 644㎡, 균등	평균면적 약 990㎡, 상대적 확대	
		원인	생활양식	사회적	경제적	
	형상	과정	불규칙적	정형적	장방형	
		원인	생활양식	사회적	경제적	
	길	위계	과정	큰길 → 골목길	큰길 → 어귀길 → 안길 → 막힌 골목길	큰길 → 어귀길 → 안길 → 트인 골목길
			원인	생활양식	생활양식	경제적
형태		과정	T자형 안길	A자형 안길, 막힌 골목길	트인 골목길	
		원인	사회적	생활양식	의식구조	
단위주거	평면구성	과정	부속채 62% 소유	부속채 46% 소유	부속채 75% 소유	
		원인	생활양식	사회적	경제적	
	마당이용	과정	앞마당 확보	앞마당 강조	앞, 뒷마당 강조	
		원인	생활양식	사회적	경제적	
위계	과정	주거지 후면 높음	기준이 없음	주거지 앞면 높음		
	원인	생활양식	사회적	경제적		
공동시설	수요	과정	생활수요	농업생산수요	편의, 사회시설 수요	
		원인	생활양식	사회적	경제적	
	배치위치	과정	산재(散在)	주거지의 중심	촌락의 입구	
		원인	생활양식	사회적	경제적	
경작지	유형	과정	유지	유지	유지	
		원인	기후풍토	기후풍토	기후풍토	
	규모	과정	단위규모 불균등	단위규모 균등	단위규모 증가	
		원인	생활양식	사회적	경제적	
자연환경	산	과정	위계 유지	생활필요성 강조	의존도, 위계 약화	
		원인	생활양식	사회적	경제적	
	하천	과정	의존도 강화	일상생활에서 약화	농업생산에서 유지	
		원인	생활양식	사회적	건축여건	

이 되었다. 하지만 도로의 확장이 기존 주변대지의 여건상 불가능해지자 부속채의 수장공간의 확대와 함께 자신들의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공간을 창조하게 되었다.

(3) 생활양식의 변화요인

자연환경의 유사함은 제1단계의 전통적 생활양식 정착의 계기가 되어 주거공간의 구성상 전통성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생산력의 발전과 경제력의 증가는 생산, 취사, 난방, 조명 등 설비의 현대적 기술 도입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른 자연 의존도, 공동합작, 사회교체가 줄어들어 생활양식이 가족 중심적, 개인화되어 촌락의 공간구조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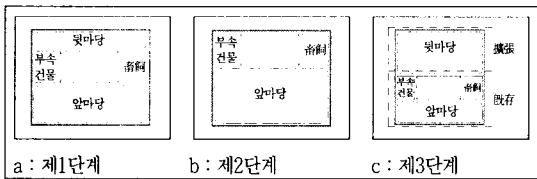


그림 10. 주거물과 마당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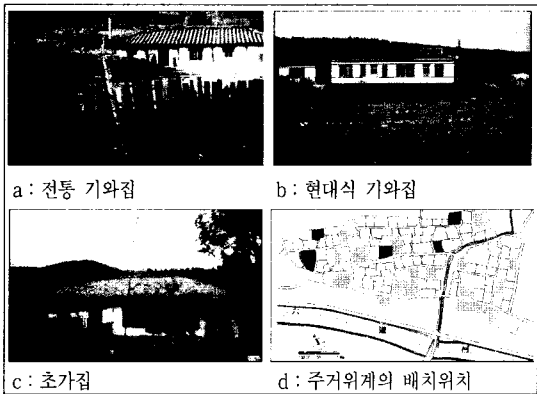


그림 11. 단위주거의 위계

법례: ■ : 제1단계 전통기와집; □ : 제3단계 현대식기와집;

표 3. 단계별 공동시설의 수요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사회시설	무	합작사의 앞마당	문화실(마을회관)
농업시설	무	집체우사(牛舍), 철공소	합작사, 정미소
편익시설	공동우물	합작사, 철공소	가게, 정미소

표 4. 단계별 공동시설의 배치위치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사회시설	무	주거지의 중심	촌락의 입구
농업시설	무	저장시설-주거지 외곽, 가공시설-주거지 중심	저장, 판매-외곽, 가공-주거지 중심
편익시설	주거지에 산재	교통조건이 편리한 곳	주거지 중심, 촌락입구

(4) 의식구조의 변화요인

해방 전 조선족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인 대가족 구조 형태로 인하여 건물 외부의 공간도 가족의 전통적 관습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나뉘어졌다. 해방 후 남녀평등이 실현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가정에서의 지위가 제고되면서 부부관계를 핵심으로 한 핵가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족형태의 변화는 주택의 개량을 요구하게 되었고 아울러 주거건물의 외부 공간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촌락 주거자들의 다양한 고소득 생산경영에 익숙하지 않은 한계 극복을 위한 전통 타파와 농촌을 이탈하거나 시장경제에 뛰어드는 현상은 일부 공간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5) 건축조건의 변화요인

주택건축의 재료사용에서 벽돌, 기와, 시멘트가 기존의 흙과 짚을 대체하게 되어 주택의 여러 가지 기능의 향상을 가져왔다. 특히 주택의 보온성이 강화되어 예전에 산자락에 주택을 지어 겨울의 찬바람을 피하던 주택의 입지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건축조건의 요인은 촌락의 주거공간이 후면에서 전면으로의 이동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촌락의 새로운 경관적

표 5. 공간요소들 사이의 관계

분류	내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대지 길 (의존도)	과정	강	약	강
	원인	생활양식	사회적	경제적
골목길 (의존도)	과정	일반	강	약
	원인	생활양식	사회적	경제적
단위주거 길	과정	측면진입이 주	측면진입이 주, 후면진입 증가	측면진입이 주, 정면진입 없음
	원인	생활양식	사회적	경제적
공동시설 길	과정	길과 관계없음	안길과 안길의 교차점	안길과 어귀길의 교차점
	원인	사회적	사회적	경제적
공동시설 단위주거	과정	半私의공간	公共공간	對外的공간
	원인	생활양식	사회적	경제적

표 6. 단계별 주거의 진입방식

진입방식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백분율	호수	백분율	호수	백분율	호수
정면진입	30%	12	29%	15	0	0
측면진입	57.5%	23	56%	29	74%	14
후면진입	12.5%	5	15%	8	2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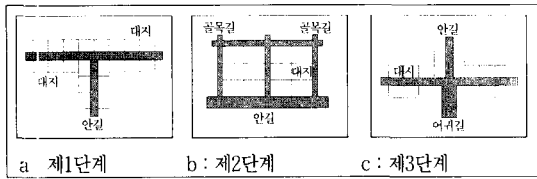


그림 12. 대지와 안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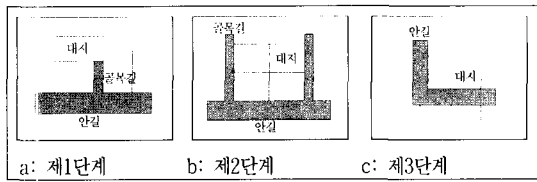


그림 13. 대지와 골목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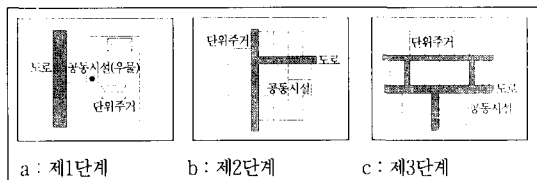


그림 14. 단위주거와 공동시설과의 관계

효과도 고려되었으리라 판단된다.

V. 고찰 및 결론

1. 공간구조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고찰

앞에서의 단계별 분석을 통하여 제1단계에서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주요한 작용요인으로서 조선족 촌락의 공간구조는 기본적으로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단계에서는 사회적 요인이 주 요인으로서 계획적인 촌락의 공간형성이 이루어졌고 또한 전통민속문화에 대한 제한은 입지적 조건 및 환경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키는 등 촌락 전체공간과 공간요소들이 변화되어 이시기에 형성된 주거지와 원 주거지와와 공간구조는 상이하게 변모되었다. 제3단계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주요인인 동시에 이에 따른 의식구조, 생활양식, 건축기술 등이 보조적 요인으로 부상하여 공간요소 및 그들 사이의 관계가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공간형성의 자연발생적, 입지적 여건에 대한 의존도의

상대적 복구와 주로 자연적 지형지물을 촌락의 공간경계로 하는 전체 공간에 대한 인식은 일정하게 지속되어 공간요소들의 변화를 포용하였다.

여기서 조선족 촌락의 공간구조는 그 형성, 발전과정에서 타민족생활풍습의 영향보다 사회경제적 영향이 더 컸음을 알 수 있었으며 조선족 촌락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족 촌락의 특성이 혈연관계로 맺어지는 동족촌락이 아니라도 사람들의 개별이주로 형성되어 일정한 유동성을 극복할 수 있고, 한반도에서의 같은 지역 출신들로 분포되어 같은 지방민속풍습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로 상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집촌의 형태를 유지하기에 촌락의 전체 공간에 대한 인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여러 변화요인으로 인한 공간요소 및 그들 사이의 변화가 일정하게 이루어졌지만 제2단계를 제외한 전체 공간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기에 공간구조는 지속되었다. 하지만 정치, 사회적 변화의 심화, 생산수단의 제고, 도시와 연결하는 외부 진입도로의 개선과 같은 교통의 편리성, 논농사를 이탈하고 다각경영으로 나아가는 등의 의식구조의 변화, 교류 활성화의 가속은 필연적으로 전체공간이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게 되어 그에 따른 촌락공간의 정체성 변화를 예측하게 된다.

2. 결론

본 연구는 조선족 촌락의 공간구조 변화과정과 요인 파악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었다. 공간구조의 변화는 촌락의 전체 공간, 공간구성요소 및 공간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세 단계별로 고찰하여 변화요인을 추출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촌락의 전체 공간은 형성 초기에 자연발생적으로 근간을 이루었으며 전통적인 입지적 여건과 환경은 촌락의 형성과 발전에 가능성과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 자연적인 지형지물로 공간경계를 구분하고 있다.

둘째, 공간구성요소에서 대지의 수량은 감소되고, 길은 위계별 작용이 뚜렷하여지나 최소단위 위계로서의 골목길은 퇴화되고 있었으며, 단위주거는 접근 용이한

경제적인 이용효과에 치우치고 있었다. 공동시설은 중심시설로서 대외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작지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고, 자연환경요소에 대한 의존도는 약화되는 변화상태를 나타냈다.

셋째, 공간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주로 길과의 관계변화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졌는데 대지, 단위주거 및 공동시설은 위계가 높은 길에 접근하였으며 공동시설은 단위주거와의 상대적 독립성을 나타냈다. 아울러 촌락의 외부 진입도로의 개선은 기타 요소들의 변화가 가장 활발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도시와의 교통 편리성이 강화되어 도시화, 타민족문화와의 접촉이 잦아져 촌락의 공간구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상술한 공간구조의 변화과정을 거시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특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시적으로 보면 공간구성요소와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서로 다른 척도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촌락 공간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단계별로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형성초기에는 전통적 생활양식을 따랐으며 1949~1977년까지는 사회적 요인이 주 영향을 미쳤었다. 1978~현재까지는 경제적 요인이 주 원인이고 건축조건, 생활양식, 의식구조 등이 보조적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다 민족국가에서 개혁개방의 경제적 격변시대에 있는 조선족 민족공동체의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촌락은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한층 더 커질 것이며 이에 따른 기타 요인도 다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간구성요소와 그들 사이의 관계변화는 가속화되어 전체공간의 이질성이 높아져 공간구조의 민족정체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공간구조의 변화 중에서 한반도의 포괄적 모태문화를 바탕으로 한 장재촌의 자체특성의 형성을 규명하였으나 연구 대상지가 연변지구의 전 지역을 대변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와 접근거리의 차이 및 촌락의 규모, 촌락주민의 타민족과의 혼거 밀도, 주민의 선정 출신지역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대상촌락을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변화를 '전통의 현대화'와 '전통의 이질화'이라는 각도로 세부적으로 구분

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 주 1.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고 외국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에 대한 명칭은 '한국인', '조선사람', '한인', '조선인' 등이 있는데 아직 통일된 호칭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을 가진 한민족을 '조선족'으로 보편적으로 부르고 있어 각기 다른 시기에 '조선인', '조선 이주민' 등으로 표현한 대상도 조선족의 先民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 주 2. 청(淸)나라는 동북 백두산 이북의 천여리 땅을 조상의 발상지로 간주하여 만족(滿族)을 제외한 기타 민족이 이주하는 것을 200여년 동안 금지하였다.
- 주 3. 1978년말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경제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말한다.
- 주 4. 생산성을 좀더 높이기 위해 1951년에 시작된 생산수단과 토지를 집단적으로 경영하는 운동이다.
- 주 5. 1958년 농업합작화의 규모와 공동소유화의 정도가 크고 높을수록 생산의 발전에 유리하다는 인식하에 일어났다.
- 주 6.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진행되었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10년 동난기"로 규정되고 있다. 이 기간의 농업정책은 식량생산만을 강요하였으며 가족사육은 물론 개인 사유경작도 금지시켰으며 족보, 사여, 계 등 조선족의 고유문화가 파괴되었고 농촌의 협동조직이나 공동행사가 없어졌다.
- 주 7. 인구는 2001년 中國 제5차 全國人口普查統計에 의하여 2001년 "12월 25일 龍井市 智新鄉 農業統計報表 年產值表" 에 수록된 자료이다.

인용문헌

1. 고석철, 장병관(2001) 전통마을의 문화지속성 평가-경북 영천 성원리를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9(6) : 1-10.
2. 김덕현(1991) 유교적 경관의 이해. 서울 : 민음사.
3. 김형국(1997) 한국공간구조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4. 오홍석(1989) 취락지리학. 교학연구사.
5. 윤원근(1999) 한국농촌계획론. 서울 : 대학출판사.
6. 장태현(2001) 중국 연변 전통주거의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 산업과학연구 18(2) : 77-87.
7. 한국문화인류학회(1998) 흑룡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우진인쇄.
8. 한상복, 권태환(1994)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9. 한필원(1991) 농촌 동족마을 공간구조의 특성과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홍경희(1985) 촌락지리학. 서울 : 법문사.
11. 홍동식(1988) 농촌사회학의 이해. 서울 : 법문사.
12. Rapoport, Amos(1969) House Form and Culture. 이규복(역) 주거형태와 문화. 서울 : 열화당. 1985.
13. 金奎方, 董昌順, 朴京洙, 秋英春(1990) 延邊經濟史. 延吉 : 延邊人民出版社.
14. 朴青山, 金哲洙(2000) 中國朝鮮族歷史故事. 延吉 : 延邊人民出版社.

-
15.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2000) 民俗史, 北京: 民族出版社
16. 沈惠淑(1992) 中國朝鮮族聚落地名與人口分布,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17. 李松林(1991) 延邊經濟地理,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18. 延邊五十年 編委會(1999) 延邊五十年, 延吉: 延邊人民出版社

원 고 접 수 : 2002년 12월 30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3년 2월 5일
3인의명 심사필